**16. 나마하게관: 해설, 한무제설(옛날이야기 999단의 돌계단)**

이 전설의 중심을 이루는 장난을 좋아하는 5마리의 생명체는 중국의 황제인 한나라 무제(기원전 156-87)에게서 오가로 가져온 것입니다. 황제의 하인으로 일하도록 파견된 귀신들(식인귀와 같은 생명체로 거룩한 존재로 여겨짐)은 매일 지칠 줄 모르고 일했는데 1년 중 단 하루는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. 이때는 귀신들이 작물을 훔치거나 마을 처녀들을 납치하는 등, 각종 문제를 일으켰습니다. 귀신들의 악행을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귀신들과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. 힘을 과시하고 싶다면 마을에서 산 중턱에 있는 아카가미 신사까지 1,000단의 돌계단을 하룻밤 사이에 만들도록 명령하고 이를 실패하면 절대로 마을에는 나타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.

귀신들은 해가 뜨기 훨씬 전에 999단의 돌계단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, 그 순간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. 마을의 한 약삭빠른 사람이 수탉의 아침 울음소리를 흉내 내 귀신들이 내기에 졌다고 착각하게 한 것입니다. 귀신들은 산으로 도망친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꼼꼼한 성격의 귀신들이라면 언젠가 속은 것에 대해 복수하려 들지 않을까 걱정했던 마을 사람들은 산과 그곳에서 살게 된 귀신을 달랠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. 매년 현지 젊은이들이 분장한 귀신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.